



홈플러스 창립 25주년 “3월 한 달간 역대급 세일”
홈플러스가 3월 한 달간 창립 25주년 기념 그룹 통합 세일 ‘락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익스프레스가 총출동하며 각 채널의 강점을 발휘해 역대급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스물다섯 살을 맞아 숫자 ‘25’를 더욱 신선하고 당찬 이미지의 ‘락’으로 표현했다. 사진제공 | 홈플러스

K쇼핑·동원디어푸드, 라이브커머스 협력



정기호 KT알파 대표(왼쪽)와 김용수 동원디어푸드 대표.

KT알파가 운영하는 T커머스 K쇼핑이 동원디어푸드와 전략적 사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원디어푸드는 동원그룹 내 온라인 식품 유통 사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중심의 유통 채널과 식품 특화 상품 등 양사가 보유한 역량 및 자원을 활용해 업무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최유성 K쇼핑 모바일라이브사업본부장은 “K쇼핑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동원그룹 전략상품을 단독 구성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기획방송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롯데리아, 리얼한 맛 ‘불고기 4DX 버거’ 선보



롯데리아가 ‘불고기 4DX 버거’(사진)를 내놓았다. 대표 제품인 불고기 버거의 추가 라인업이다. 중량을 늘린 불고기 패티와 직화로 구운 비프불고기를 토핑에 달콤하고 짭짤한 ‘단짠’ 맛이 특징이다. 여기에 국내산 청양고추마요 소스의 짭짤한 매콤한 맛이 조화를 이룬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리얼함의 의미를 담아 제품명에 ‘4DX’를 담았다.

애경산업 ‘허브마리1848 드라이시트’ 출시



애경산업이 ‘허브마리1848 드라이시트’(사진)를 출시했다. 의류 건조 시 섬유 보호는 물론 건조 후 기분 좋은 향을 전달해주는 의류 건조기 전용 드라이시트다. 제주산 허브에센스를 함유해 풍부하고 싱그러운 향이 특징이다. 마찰 방지 성분과 정전기 방지 효과를 더해 옷감 손상을 줄였으며, 피부자극테스트도 완료했다. 동백꽃 향기의 ‘카멜리아 힐’, 고급스럽고 은은한 한란 향기의 ‘오키드 힐’ 등 2종으로 구성했다.

‘매출 15조’ CJ제일제당, 미래 먹거리 선점 나선다

해외수출 침병 키즈나 공장 준공
지리적 이점 앞세워 글로벌 공략
식물성 브랜드 ‘플랜테이블’ 론칭
미래 식량자원 배양육 연구 꾸준

CJ제일제당 이 식품사업부문의 승부수로 글로벌 영토확장과 미래 식량 자원을 꺼내들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15조 원 시대를 연 만큼, 상승세를 이어갈 비책으로 풀이된다.

●베트남 키즈나 공장 준공

먼저 2월 27일 베트남 톤킨현 견죽현에 ‘해외 전초 기지’라 불리는 키즈나 공장을 준공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K-푸드 해외 확산 추진력을 높여 글로벌 종합식품회사 비전 달성에 다가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수출 모델이 적용된 첫 공장으로 총 3만4800㎡, 4층 건물 2개 동으로 구성했다. 그동안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시장 공략은 ‘국내 생산 후 해외 수출’ 혹은 ‘해외 현지 생산 및 현지 판매’가 주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키즈나 공장 준공으로 주력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곧바로 다른 해외 인접 국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베트남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유럽연합(EU) 등으로 수출을 활발히 추진하는 글로벌 수출 침병 역할이 기대된다. 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관세 혜택을 활용해 수출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동남아, 호주 등지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원재료를 손쉽게 공급할 수 있어 CJ제일제당의 글로벌 전략 제품인 만두, 가공밥, 김치, K-소스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수출 교두보로서 최적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또 ‘글로벌 식품 안전 경영 시



CJ제일제당이 식품사업부문의 승부수로 글로벌 영토확장과 미래 식량 자원을 내세웠다. ‘글로벌 수출 침병’이라 불리는 CJ제일제당의 베트남 키즈나 공장 전경(위), 미래 식량 자원 일환으로 선보인 식물성 식품 브랜드 ‘플랜테이블’ 제품군. 사진제공 | CJ제일제당

스템’,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등 국제 식품안전 인증을 갖춘 것도 장점이 다.

공장 설계 과정부터 ‘할랄(무슬림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전용 생산동을 준비했다. 가공밥, 김치, K-소스 등의 품목에서 인도네시아 ‘무이’와 말레이시아 ‘자킴’ 인증을 통과해 할랄 시장 공략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또 CJ제일제당이 독자 개발한 스프링롤 성형 자동화 설비를 처음 도입한 글로벌 생산 기지이기도 하다. 지속적인 설비 개발을 통해 자동화율을 올해 70%에서 2024년 100%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베트남 중부 달랏시에 농기구와 비료를 지원하고, 현지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구매해 지역 상생 선순환에 기여하는 ‘एको 허브’ 체제도 갖췄다.

최은성 CJ제일제당 대표는 “키즈나 공장은 주력 제품을 베트남에서 생산해 곧바로 다른 해외 인접 국가로 공급할 수

있고, 국제 식품안전 인증과 할랄 인증도 갖춘 만큼 향후 CJ제일제당의 핵심 글로벌 수출 전초 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식물성 식품 등 미래 식량 자원 선점

지속 가능한 미래 식량 자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식물성 식품 전문 브랜드 ‘플랜테이블’을 론칭한 게 대표적이다. ‘Plant(식물)’와 ‘Table(식탁)’의 합성어로, 고기 없이 100% 식물성 원료로 맛있는 미식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첫 제품으로 비비고 플랜테이블 왕교자 국내용 2종(오리지널·김치), 비비고 왕교자 수출용 2종(야채·버섯), 비비고 플랜테이블 김치 등을 선보였다.

이번에는 배양육 시장 선점에 나선다. 배양육은 동물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제조해 일반육의 주요 성분을 동일하게 구현한 육류를 말한다. 현재 초기 산업 단

계이나, 2040년 전체 육류시장의 35%를 차지할 전망이 나오는 등 미래 식량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를 위해 세포 배양배지 생산 기업인 케이셀 바이오사이언스와 동물세포 배양배지 및 배지 소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지는 미생물 및 동식물의 조직을 배양하기 위한 영양물을 말한다. 세포 배양배지는 배양육 생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사업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꼽힌다. 이번 협약으로 CJ제일제당은 배양육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소재 개발 및 공급을, 케이셀은 배지 생산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배양육은 높은 수준의 바이오테크 기반 사업으로 기술혁신 기업 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며 “자체 연구개발은 물론 식품 바이오 분야 업체와 학계의 협업을 활발히 추진해 미래 식량 자원 선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더현대 서울’ 개점 첫 해 매출 8005억원 신기록

업계 최단 기간 연매출 1조원 목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더현대 서울이 개점 1년 만에 매출 8000억 원을 돌파하며, 국내 백화점 개점 첫 해 매출 신기록을 달성했다.

오픈 1주주년 2월 26일 기준 누적 매출 8005억 원을 기록했다. 오픈 당시 계획했던 매출 목표인 6300억 원을 30% 초과 달성한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마케팅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피스 타운’이라

는 여의도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론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 기간 더현대 서울을 다녀간 고객은 약 30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파격적인 공간 디자인, 혁신적인 콘텐츠, 차별화된 매장 구성 등을 앞세워 소비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 2030 MZ세대를 집중 공략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다음 목표는 백화점 업계 최단 기간 연매출 1조 원 달성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명품 라인업 보강에 나선다. 지난해 티파니, 생로랑, 부세론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한데 이어, 올 7월에는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이 입점한다. 또 바세론 콘스탄틴, 프라다 등의 이색 팝업스토어도 지속 선보일 계획이다. 여기에 주변 상권 개발이 가속

화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올해 반경 5km내에 67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2025년까지 여의도가 ‘서울디지털금융허브지원센터’로 조성될 계획이어서 국내·외 핀테크 스타트업의 입주도 점쳐지고 있다.

김형중 현대백화점 사장은 “더현대 서울은 차별화된 공간 구성과 콘텐츠를 앞세워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MZ세대를 다시 백화점으로 불러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백화점의 고정관념을 깨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국내 대표 백화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뇌가 색시해지는 하루 두뇌게임

강주현의 퍼즐월드

위 정사각형 안에는 1~9까지의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사용해 가로, 세로, 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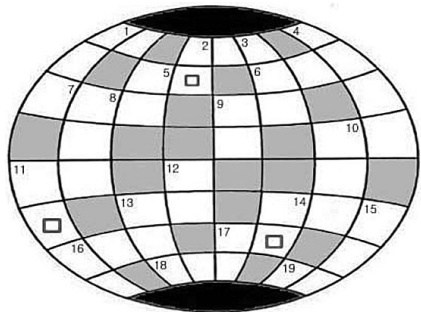
		7	6		9			
			1		2			
2		9		7		1		8
		8		6		4		7
6		1				8		4
	9		5		3		1	
3		8		4		5		2
			2		9			
		6		5		4		

	9			3			5	
5		7				8		6
	4		5		8		3	
		8		2		9		
3		7		1				4
		9		6		3		
	1		3		7		2	
2		4				5		3
	8			5			9	

■ 스도쿠정답

4	8	7	1	9	8	9	2	6
1	8	9	6	8	1	7	9	2
2	6	5	9	7	4	8	1	3
9	1	2	8	5	9	7	6	4
7	9	8	4	2	6	1	3	9
6	4	3	7	1	9	2	8	5
8	7	1	5	4	3	6	9	2
9	9	2	6	1	3	7	8	
6	2	6	8	9	7	4	9	1
1	6	7	9	5	2	3	8	4
8	2	5	6	8	1	7	9	2
8	2	9	7	4	5	9	1	6
4	1	6	5	9	8	6	2	7
7	8	2	1	6	4	9	5	3
9	9	6	8	2	7	4	9	1
6	8	1	8	4	5	2	7	9
9	7	8	2	1	6	4	3	9
2	9	4	7	6	9	1	6	8

■ 낱말문제



■ 가로 열쇠 01.남의 노래를 흥내 낸. 02.집터가 습하여 물이 늘 나는 집. ‘ㅇ각ㅇ’ 05.숲의 나무처럼 무척 많이 벌려 서 있음. 06.계절적으로 고기가 많이 잡히는 시기. 07.어떤 사물을 사랑하고 즐기는 사람. 09.아버지의 친형제의 아들딸. 10.남의 생각·주장에 따르면나 보조를 맞춤.

11.이성에 대한 사랑을 나타낸 노래. 13.씩 많은 나이. 14.사랑방 같은 곳의 구석에 치는 두 폭의 병풍. 16.한 나무의 가지가 다른 나무의 가지와 맞닿아 결이 서로 통한 것. 17.파라다이며 보호하여 지킴. 18.철교·터널에서 열차의 통과를 기다리도록 만들어 놓은 곳. 19.마주하고 술을 마심.

■ 세로 열쇠 01.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어머니의 사랑. 02.임금께 올리는 진지. 03.성(姓)이 같은 사람이 모여 사는 촌락. 04.어떤 일을 하는데 때가 아직 이룸. 05.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08.남의 일에 특히 흥미를 가지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09.죽느냐 사느냐의 갈림. 10.목적이 같은 사람이 한 패를 이룬 무리. 11.한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첫머리를 아울러 이르는 말. 12.지휘하여 명령함. 13.높은 지대. 14.웃감·종이·가족·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15.사리에 맞지 않게 아무렇게나 지껄임. 17.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남에게 하소연함.

■ 낱말정답

단어 이어가기: 낱말을 모두 풀 다음 □ 칸을 이어붙이면 나라 이름이 됩니다.

